

『율리시즈』 “네스터”장의 역사 담론*

전 은 경

역사란 불변의 사실인가, 아니면 가변적 픽션인가. 언어가 먼저 일까, 아니면 사건이 먼저 일까. 역사 서술에서 사유와 언어가 담당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언어는 역사를 왜곡 시키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역사는 언어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것일까. 역사란 순전히 과거에만 속하는 것일까. 역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걸까.

역사의식이 강하게 느껴지는 조이스의 작품을 대할 때 이러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 조이스는 역사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실험적으로 극화함으로써 역사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촉발시키기 때문이다. 역사에 대한 조이스의 관심은 당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모국 아일랜드의 항쟁과 더불어 두개의 세계대전의 와중에서 유럽의 정치적 격동기를 살았던 지성인으로서 필연적일 수 밖에 없었다. 실지의 사건과 인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조이스의 작품에서는 가공적 이야기나 인물대신에 역사적 인물과 실제의 사건들을 소재로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초기 작품인 『더블린 사람들』은 조국 아일랜드의 현대 정신사를 다룬 작품으로, 식민지 상황의 정치적 억압과 아일랜드 특유의 정치와 종교의 결속에서 오는 사회현실 및 정신적 마비상태를 그리고 있으며 작품의 후반부로 갈수록 정치적 이슈는 점점 더 주요 주제로 부각되며 심층적으로 다루어진다. 자서전적인 소설로 알려져 있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도 첫 장 부터 아일랜드의 역사와 정치를 조이스 특유의 제시 방법을 통하여 그려냄으로써 개인의 역사가 아일랜드 국가의 역사와 병행하여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조이스는 그의 작품 세계가 성숙해 갈수록 역사의식과 이의 제시 방법 또한 더욱 심

* 이 논문은 1995년도 교육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 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화되어 간다. 아일랜드의 정치, 문화, 역사의 고리가 한데 어울려져 있는 「율리시즈」에서는 특히 ‘역사’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장인 “네스터”장이 좋은 본보기가 된다. 조이스의 마지막 작품인 「피네간의 경야」(*Finnegans Wake*)에서는 「율리시즈」에서 호머의 「오딧세이」가 기본적인 틀이 되었듯이 18세기 이탈리아의 역사 철학자인 비코(*Giambattista Vico* 1668-1744)의 「*New Science*」(*Scienza Nuova*)가 작품 구성에 있어 기본 틀이 되고 있다. 「피네간의 경야」의 네 개의 장은 구성과 내용면에서 비코의 인류 역사의 진행에 대한 네 단계를 기본 골격으로 삼고 있으며, 작품의 끝 단어가 작품의 맨 처음 단어와 연결됨으로써 이 작품은 시작도 결말도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이로써 비코의 역사 순환설을 반영하고 있다. 작품의 시작에서 부터 인류의 역사와 아일랜드 고대의 역사가 한데 어우러져 역사의 주제는 이전의 작품들 보다 한층 더 심도있게 탐구되고 있으며 이를 조이스 특유의 익살스러운 해학과 더욱 더 대담한 문학 기교를 통하여 제시되고 있다. 이 마지막 작품에서는 역사가 더욱 더 빈번하게 작품의 소재로 다루어 질 뿐만 아니라 역사의식에 있어서도 조이스의 초기작품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억압적 분위기에서 해방의 기상으로 변화되어 가며, 우울하고 부정적인 시각 보다는 긍정적이고 활기에 찬 시각에서 다루어 진다. 예컨대 아일랜드의 독립을 위하여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파넬(*Charles Stewart Parnell* 1846-91)은 조이스 일생에 걸쳐 최고의 영웅으로 받아들여진 인물로 그는 조이스의 전 작품에 걸쳐 주요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데 「더블린 사람들」의 “*Ivy Day in the Committee Room*”에서는 파넬이 과거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대한 유령과 같은 존재로 그가 살아 있던 과거와는 대조적으로 현재의 초라함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비해 「피네간의 경야」에서는 파넬은 세계 역사속의 온갖 영웅의 모습으로 등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위압적인 면모에서 탈피하여 다채로운 면모로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역사의식은 시대정신이 반영된 것으로 시대가 바뀌고 인식이 바뀌게 됨에 따라 역사의 개념도 달라진다. 가령 20세기의 역사 개념은 전 세기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19세기 리얼리즘의 리얼리티에 대한 명백한 이미

지는 역사에 대하여서도 객관성에 근거한 과학으로서 절대적인 지식으로 간주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랑케 (Leopold von Ranke 1795-1886)는 과거에 대해 말할 때 그 과거에 대한 주관적 판단보다는 오직 실제로 일어난 일만 기록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20세기 전반의 영국의 역사 철학자인 콜링우드 (Robin Collingwood)는 역사적 상상력은 어떤 분명한 사실에서 출발하느니만큼 픽션의 경우에서처럼 자유롭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역사적 '사실'이란 그 자체를 존재하게 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해석이나 주장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인식의 체제나 전제적 가설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주장함으로써 랑케와는 다른 역사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좀더 확대하여 생각하면 역사의 기술에는 기술하는 자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란 언제나 재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면에서 과거는 언제까지나 알 수 없는 존재로 현재와의 상호 관계에서만 정의된다. 콜링우드의 비교적 현대적인 역사관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대두된 해체주의의 세계에 대한, 인간에 대한, 그리고 리얼리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면서 좀더 복잡하고 극대화 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구의 형이상학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그동안 절대 진리로 의심없이 받아들여졌던 것들에 대한 해체주의의 재평가와 이 이론이 지니는 새로운 시각은 조이스의 문학 연구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게 했다. 인문, 사회, 예술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해체주의 철학은 문학비평이론의 발달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근자의 조이스 연구의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했는데 무엇보다도 작품 연구에 있어 그동안 도외시 되었던 주제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했다. 조이스 작품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주제는 대체로 신화, 상징, 미학이론 등에 국한되어 왔는데 특히 근자에 이르러 신화보다는 역사에, 상징에 대한 탐구를 통한 통합된 의미를 추구하기 보다는 상충적 또는 다층적 의미의 공존을, 미학이론 보다는 정치·사회적 이슈등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문학 고유의 소박하고 고답적인 주제보다는 문학과 사회를 하나의 연장선상에 놓고 보려하는 다시 말해서 문학의 사회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시도 되고 있다. 기교면에서도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기법이었던 의식의 흐름 기법에서

상호텍스트성, 언어, 주체등의 주제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논의되고 있다. 다 시말해서 조이스의 작품은 해체주의 비평의 각별한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피네간의 경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¹⁾

해체주의를 표방하는 철학자및 이론가들은 우리에게 익숙해서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이들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때로는 해체주의가 유희적 스타일의 매개를 통하여 벌리는 문화적 권위와의 투쟁은 초월적인 '진리'에의 도전이며 궁극적으로 리얼리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한다. 리얼리티에 대한 인식과 불가분의 관계인 역사인식 또한 해체주의에서 중요한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가령 로랑 바르트는 *Mythologies*에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가공적인 성질의 '진리'를 바탕으로한 역사인식의 오류를 지적하며 역사인식의 형성에 작용하는 허구성을 부단히 일깨우고 있다. 조이스 연구와 관련해서는 해체주의에서 이해하고 있는 언어, 주체, 담론에 대한 새로운 개념, 그리고 이것들의 권력과의 관계, 서구의 전통적 이성주의에 대한 근원적 회의, 선과 악에 대한 이분법적 논리와 이들에 대한 기존의 가치기준과 전제에 대한 회의, *world/text, reality/language, past/present*간의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이론은 조이스의 작품 전반에 걸쳐 뿌리 깊게 내재해 있는 명암과 전복적인 테크닉, 끊임없는 저항, 그리고 심지어 조이스의 트레이드 마크인 유모어에 이르기까지 그의 작품을 움직여 가는 기본적인 매카니즘을 이해하는데 실로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다.

역사에 대하여 해체주의가 갖는 의문은 첫째 역사의 기존의 권위의식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 한다. 절대적인 진리인양 제시되어왔던 역사쓰기에 대하여 데리다 (Jacques Derrida)는 그의 저서 *Writing and Difference*에서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 해체주의에 있어 대표자격인 데리다의 「피네간의 경야」에 대한 논문이나 라캉과 크리스테바 역시 자신들의 해체주의 이론을 설명하는데 「피네간의 경야」를 주로 예시 하고 있고 아울러 이들의 1984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렸던 국제 조이스 학회에 동시에 참가했던 일은 조이스 작품과 해체주의와의 밀접한 관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A history, that is, an archaeology against reason doubtless cannot be written, for, despite all appearances to the contrary, the concept of history has always been a rational one. It is the meaning of 'history' or archia that should have been questioned first, perhaps. A writing that exceeds, by questioning them, the values 'origin', 'reason', and 'history' could not be contained within the metaphysical closure of an archaeology.²⁾

이에 대한 자구책의 하나로 데리다는 역사의식에 "difference"의 도입을 제의하고 있다.

if the word 'history' did not carry with it the theme of a final repression of difference, we could say that differences alone could be 'historical' through and through and from the start.³⁾

"Difference"는 과거 사건에 대한 역사 쓰기를 거듭 되풀이 하게 하며 아울러 언제나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하나의 서술이 행해지면 이 서술은 다른 또 하나의 역사서술의 가능성을 암시 한다. 이로써 폐쇄적 역사관에서 벗어나 생성적이며 열린 역사관을 지향할 수 있다.

해체주의 이론가중 데리다의 이성비판과 맥을 같이 하면서 역사의 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탐구하고 있는 철학자로 푸코를 들 수 있겠다. 푸코는 *Madness and Civilization*에서 주장하기를 중세시대에는 '이성'과 '광기'는 상호간에 자유롭게 넘나들었는데 고전주의 (classicism)가 대두되면서 '광기'를 침묵하게 하거나 추방하여 버렸다고 주장 한다. 푸코에게 광기의 역사란

2. Jacques Derrida, *Writing and Difference*, tr. Alan Bas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8), p.36.

3. Jacques Derrida, *Speech and Phenomena, and Other Essays on Husserl's Theory of Signs*, trans. Newton Garver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3), p.141.

전통적인 역사쓰기에서 침묵되거나 억압된 역사를 해방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푸코의 논문, "Nietzsche, Genealogy, History"는 해체주의적 역사관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데 푸코의 이 논문은 조이스의 작품에 나타나는 역사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여기에서 푸코는 "역사" ("history")라는 용어를 "계보학" ("genealogy")이라는 용어로 대치함으로써 기존의 역사 개념과 구별하여 그 나름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Genealogy"라는 용어는 니이체로부터 연유 했고 이에 대한 푸코의 설명 그 자체가 역사에 대한 그의 새로운 개념을 말해준다. 따라서 니이체의 역사관과 아울러 푸코가 "genealogy"라는 용어에 부여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푸코의 역사관을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Genealogy does not oppose itself to history as the lofty and profound gaze of the philosopher might compare to the molelike perspective of the scholar; on the contrary, it rejects the metahistorical deployment of ideal significations and indefinite teleologies. It opposes itself to the search for "origins."⁴

계속해서 푸코는 니이체의 역사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해체주의적 역사관을 피력하고 있다.

Why does Nietzsche challenge the pursuit of the origin(*Ursprung*), at least on those occasions when he is truly a genealogist? First, because it is an attempt to capture the exact essence of things, their purest possibilities, and their carefully protected identities, because this search assumes the existence of immobile forms that precede the

4. Michel Foucault, 'Nietzsche, Genealogy, History' in *Language, Counter-Memory, Practice*, ed. Donald F. Bouchard,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77.), p. 140.

external world of accident and succession. This search is directed to "that which was already there," the image of a primordial truth fully adequate to its nature, and it necessitates the removal of every mask to ultimately disclose an original identity.⁵⁾

위에서 푸코가 언급한 "origin"은 사건의 동기, 원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origin"을 추적해 나간다는 것은 사건을 이해하는데 있어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계, 곧 인과 관계 중심의 이해 방법을 가리킨다. 많은 경우에 있어 사건들을 분석할때 이에 대한 이미 알려진 추상적 전제가 사건분석에 선행한다. 니이체는 이러한 방식의 역사이해는 역사물에 인간의 추상적 전제를 부여하는 것으로 역사의 실체를 이해하게 하기 보다는 역사물을 왜곡시키거나 비현실적인 공허한 역사관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왜냐면 "origin"이 추구하는 "사건들에 대한 정확한 정수" 나 "이들의 가장 순수한 가능성들" 그리고 "이들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타진해 놓은 정체성"등은 실제 외부 세상에서의 사건들의 우발성과 이에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예측불허성을 묵과하고 이 사건들에 대한 융통성 없는 확고한 역사적 형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에 사건들을 맞추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에 대한 고찰에서 이러한 형이상학적 관점을 거부하는 계보학자 ("genealogist")는 역사속에서 "영구불변의 본질적인 비밀"을 발견하기 보다는 사건들에 내재하는 본질은 아예 없다는 점과 이 본질이라는 것은 서로 본질이 다른 형태들로부터 가져와 조립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니이체가 사건들에서 발견한 것은 "origin"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성질을 띤 힘들간의 충돌과 알력, 그리고 이들간의 불균형이다.

However, if the genealogist refuses to extend his faith in metaphysics, if he listens to history, he finds that there is "something altogether different" behind things: not a timeless and essential secret, but the secret that they have no

5. ibid. 142.

essence or that their essence was fabricated in a piecemeal fashion from alien forms. Examining the history of reason, he learns that it was born in an altogether "reasonable" fashion — from chance; devotion to truth and the precision of scientific methods arose from the passion of scholars, their reciprocal hatred, their fanatical and unending discussions, and their spirit of competition—the personal conflicts that slowly forged the weapons of reason. Further, genealogical analysis shows that the concept of liberty is an "invention of the ruling classes" and not fundamental to man's nature or at the root of his attachment to being and truth. What is found at the historical beginning of things is not the inviolable identity of their origin; it is the dissension of other things. It is disparity.⁶⁾

니이체는 계속해서 주장하기를 역사의 시작 (내지는 사건의 출현)에는 불균형과 상이함이 점철되어 있어 역사 (사건들)의 진행에서 한결같이 적용되는 지속적 의미를 찾아내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가능하여 역사적 사건들의 근저에 내재해 있는 의미를 밝혀 낸다면 이는 역사의 실체를 파악하기 보다는 형이상학에 입각한 인문주의의 진전을 보일 뿐이라는 것이다. 만일 그 자체로는 본질적인 의미가 없는 역사적 사건들에 방향을 설정하여 새로운 의도에 따라 역사의 해석을 한다면 이는 역사에 대한 일련의 해석만을 산출해내는 것으로 인문주의의 진전에 대한 논의가 되는 것이지 역사의 실체나 본질을 밝히는 것과는 사실상 무관하다.

The isolation of different points of emergence does not conform to the successive configurations of an identical meaning; rather, they result from substitutions, displacements, disguised conquests, and systematic

6. *ibid.* 142.

reversals. If interpretation were the slow exposure of the meaning hidden in an origin, then only metaphysics could interpret the development of humanity. But if interpretation is the violent or surreptitious appropriation of a system of rules, which in itself has no essential meaning, in order to impose a direction, to bend it to a new will, to force its participation in a different game, and to subject it to secondary rules, then the development of humanity is a series of interpretations.⁷⁾

이어서 니이체는 위의 양상을 띄고 있는 역사쓰기와는 대조적인 계보학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The role of genealogy is to record its history: the history of morals, ideals, and metaphysical concepts, the history of the concept of liberty or of the ascetic life; as they stand for the emergence of different interpretations, they must be made to appear as events on the stage of historical process.⁸⁾

푸코는 계보학과 전통적 의미에서의 역사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니이체의 의견을 계속하여 설명한다. 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함이 점철되어 있는 역사에 초역사적 관점을 부여하는 전통적 역사관은 온갖 다양함을 묵과하고 이에 일방적인 형식을 부여하는 주관적인 인지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Nietzsche's criticism, . . . always questioned the form of history that reintroduces (and always assumes) a suprahistorical perspective: a history whose function is to compose the finally reduced diversity of time into a totality

7. *ibid.* 151-152.

8. *ibid.* 152.

fully closed upon itself; a history that always encourages subjective recognitions and attributes a form of reconciliation to all the displacements of the past; a history whose perspective on all that precedes it implies the end of time, a completed development.⁹⁾

그는 이어서 지적하기를 역사가는 시간밖에서 도움을 발견하며 그들의 판단은 전혀 과학적이지 못한 묵시록적 객관성에 근거하고 있고 이는 영원한 진리와 영혼의 불멸, 의식의 본질에 대한 변치 않는 정체성을 믿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묵시론적 관점"이나 "진리", "불멸의 영혼", "정체된 의식"등은 역사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역사와는 사실상 무관한 추상적 이론들일 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 대안으로 니이체는 다음과 같이 제의하고 있다.

Once the historical sense is mastered by a suprahistorical perspective, metaphysics can bend it to its own purpose and, by aligning it to the demands of objective science, . . . On the other hand, the historical sense can evade metaphysics and become a privileged instrument of genealogy if it refuses the certainty of absolutes. Given this, it corresponds to the acuity of a glance that distinguishes, separates, and disperses, that is capable of liberating divergence and marginal elements—the kind of dissociating view that is capable of decomposing itself, capable of shattering the unity of man's being through which it was thought that he could extend his sovereignty to the events of his past.¹⁰⁾

역사는 공간을 중시하는 신화적인 형이상학적 관점과 절대성에서 벗어날때 오히려 과학적이 되며 과거에 대하여 군주처럼 군림하는 통합적인 관점에

9. *ibid.* 152.

10. *ibid.* 152-153.

서 해방될 수 있다. 푸코의 지적은 궁극적으로 역사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되는 수많은 다양한 요인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다양함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연하게 제시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역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힘들이며 역사란 어떤 면에서는 이 힘들의 대결장이라 할 수 있다. 예측불허의 돌출된 힘들의 충돌을 종전의 시작, 중간, 결말의 잘된 구성으로 짜여져 있으며 논리적인 진전을 보이는 전형적인 역사쓰기의 형식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가 없다. 또한 이 역사는 이상적인 목표점을 향하여 꾸준히 발전하기 보다는 때로는 옆으로 빗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퇴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푸코는 "‘Effective’ history differs from traditional history in being without constants"¹¹⁾ 라고 말 한다.

History becomes "effective" to the degree that it introduces discontinuity into our very being—as it divides our emotions, dramatizes our instincts, multiplies our body and sets it against itself. "Effective" history deprives the self of the reassuring stability of life and nature, and it will not permit itself to be transported by a voiceless obstinacy toward a millennial ending. It will uproot its traditional foundations and relentlessly disrupt its pretended continuity.¹²⁾

역사진행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역사의 원동력을 스토리적 형식을 갖춘 추상적 논리보다는 힘의 논리에서 찾아야 될 것 같다. 푸코는 다음에서 역사의 진행에 있어 이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Effective" history, however, deals with events in terms of their most unique characteristics, their most acute

11. ibid. 153.

12. ibid. 154.

manifestations. An event, consequently, is not a decision, a treaty, a reign, or a battle, but the reversal of a relationship of forces, the usurpation of power, the appropriation of a vocabulary turned against those who had once used it, a feeble domination that poisons itself as it grows lax, the entry of a masked "other." The forces operating in history are not controlled by destiny or regulative mechanisms, but respond to haphazard conflicts. They do not manifest the successive forms of a primordial intention and their attraction is not that of a conclusion, for they always appear through the singular randomness of events.¹³⁾

역사물에 대한 고찰에서 이제 해석자의 의지나 의도, 또는 어떠한 믿음도 배제된 이 "effective"한 역사에 대한 푸코의 정의는 생소한 느낌을 주면서도 지배적인 사고의 틀이 주는 중압감에서 해방되어 다이내믹하고 사실적이다.

역사 쓰기는 이제 더이상 철학의 "하녀"가 아닌, 이러한 에너지의 힘의 작용을 추적해가는 작업이다. 이제 힘의 매카니즘을 통해서 보는 역사는 진리와 가치를 전제로 하여 이성적으로 합당하게 진행되기 보다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없는 "틈새", "우발성", "불연속성"등으로 가득차 있다. 힘의 본질은 이성적이거나 합리성과는 무관하며 오로지 역동적이며 서로 상충되는 성질을 갖고 있고 역사란 이러한 이질적 힘들이 어떻게 공존하는가를 보여 준다.

전체주의적 사고와 통합체제를 거부하는 해체주의는 역사의 이해에 있어 절대적이거나 초월적인 인식은 그 어느 것이라도 폐쇄적이며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거부한다. 해체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초월적인 역사의식은 경직된 사고를 반영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결된 역사의식 대신 역사를 절대적 지식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도록 텍스트화 시킴으로써 역사에 대하여 다각적인 접근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역사의 텍스트화는 역사의

13. ibid. 154.

식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

조이스는 역사를 실존했었던 하나의 사실 이상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의 역사개념에는 정치성과 미학이 한데 어울려져 있으며 사회 현실적 리얼리티는 그의 언어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존재로 되살아나고 있다. 이로써 그의 작품세계는 폐쇄적 의식안에 갇혀 있는 리얼리티, 이데올로기, 그리고 언어가 표방하는 절대성에 부단히 도전하며 무한하게 열린 사고와 관점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더블린 사람들』부터 『피네간의 경야』에 이르기까지, 곧 식민주의 언어에서 해체된 언어의 구사에 이르기까지 느껴지는 것은 영과 육을 묶고 있는 올가미로 부터 해방되고자하는 몸부림이다. 조이스의 이러한 개혁과 자유를 구가하는 정신은 역사에 대한 그 나름의 이해와 과거 역사에 대한 권위적인 제시에 문제를 제기하는데서 찾아 볼 수 있다. 과거에 대한 해방은 곧 미래에 대한 해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작가라 할 수 있는 조이스가 자신의 작품에서 역사를 다루는 방식은 19세기의 대표적 역사소설가인 월터 스콧트 (Walter Scott)의 방식과는 분명 다를 것이다. 다음에서 현대적인 역사의식과 아울러 조이스의 경우 이를 어떠한 문학적 서술기법으로 담아내고 있는지, 또한 역으로 조이스가 구사하고 있는 독특한 문학기법과 언어 사용은 어떠한 역사의식을 창출해 내고 있는지를 특히 『율리시즈』의 "네스터" ("Nestor")장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 * *

역사를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는 『율리시즈』의 두번째 장 "네스터"는 크게 두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장면은 교실에서의 스티븐의 역사 수업 장면으로 스티븐과 학생들의 대화가 나오며 다른 하나는 교장실에서 스티븐과 디어시 교장이 나누는 대화가 그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장은 "역사"가 중심 주제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역사에 대한 어떠

한 일관된 서술이나 메시지는 찾아 볼 수 없다. 스티븐의 역사수업은 사이 사이에 들어간 역사 사건에 대한 그의 반추로 인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계속 저지 된다. 역사 수업이 끝날 무렵에도 그리이스의 영웅인 Pyrrhus에 관한 사뭇 심각한 역사적 사실도 학생들의 엉뚱한 연상에 의한 일종의 농담이 되어 아무런 메시지도 남기지 않은채 끝난다.

진전이 계속 저지받는 것은 역사 수업만은 아니다. 역사 공부에 지루함을 느끼는 학생들은 스티븐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자 스티븐은 수업내용을 역사에서 문학으로 바꾸어 학생들로 하여금 밀턴의 시, "Lycidas"를 낭독하게 하는데 이 또한 스티븐의 명상이 사이 사이에 들어가 이 시의 흐름이 이어지지 못한채 도중에서 중단된다. 마지막에는 스티븐의 의식은 다른 주제로 옮겨져 이 시 또한 본 내용과는 무관한 신과 교회에 대한 언급으로 어떠한 의미도 제시하지 않은채 끝난다.

밀턴 시의 낭독 도중에 삽입된 스티븐의 명상은 "possible"이란 낱말이 들어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어귀를 떠올리는데 이 "possible"이란 낱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두 저서에서 연유한 것으로, 하나는 Poetics에서이고 다른 하나는 Physics이다. 그리고 "possible"이란 낱말을 중심으로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귀에 대한 명상 또한 밀턴의 시 귀절들이 그 사이에 들어감으로서 끊기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어귀는 스티븐으로 하여금 자신이 그를 읽었던 빠리의 도서관에 대한 그의 기억으로 대치된다. 그러나 이 기억 또한 어떠한 또렷한 의미를 전달하지 않은채 갑자기 다른 류의 명상으로 바뀐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역사 (고대회랍 역사), 문학 (밀턴 시),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내용들이 그 어느 하나도 일관성 있게 연속적으로 전개되지 않고 서로 서로 교차되어 나타난 제시의 형태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스티븐은 학생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는데 이 수수께끼는 종래의 질문-대답의 형식이 아니다. 문제부터 질문이 아니라 도무지 그 의미를 헤아릴 수 없는 내용의 시 형식으로 되어 있어 어리둥절해 있는 학생들에게 스티븐이 말해주는 대답 또한 수수께끼 같은 대답으로 전혀 그 의미를 유추해 낼 수 없다. 수수께끼의 대답인 "The Fox burying his grandmother under a hollybush"와 같은 문장은 그 상징적 의미를 둘러싸고

조이스 연구가들 사이에서도 일치된 의견이 없다. 수수께끼는 해결이 안된 채로 남겨두고 학생들은 하키 경기를 하러 운동장에 나간다.

아이들이 다 나간뒤 공부에 되진 사이전트라는 학생 하나가 남아 스티븐으로 부터 개인 지도를 받게 된다. 초라하고 빈약한 몸골을 한 아이를 보며 스티븐은 이 아이를 못 군중의 발 밑에 짓밟히는 것으로 부터 보호해줄 아이 어머니를 떠올린다.

Ugly and futile: lean neck and thick hair and a stain of ink, a snail's bed. Yet someone had loved him, borne him in her arms and in her heart. But for her the race of the world would have trampled him underfoot, a squashed boneless snail. She had loved his weak watery blood drained from her own. Was that then real? The only true thing in life? His mother's prostrate body the fiery Columbanus in holy zeal bestrode. She was no more: the trembling skeleton of a twig burnt in the fire, an odour of rosewood and wetted ashes. She had saved him from being trampled underfoot and had gone, scarcely having been. A poor soul gone to heaven: and on a heath beneath winking stars a fox, red reek of rapine in his fur, with merciless bright eyes scraped in the earth, listened, scraped up the earth, listened, scraped and scraped. (U 23)

스티븐의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모성애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못 군중의 발길로 부터 아들을 보호하기위해 아들을 감싸안은 어머니, 고행의 길을 떠나는 아들을 막기 위해 엎드려 있는, 그래서 자신의 육체를 아들이 짓밟고 가도록 하는 성 콜롬바누스의 어머니에 대한 생각, 그리고 얼마전 세상을 뜬 스티븐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로 바뀐다. 이 문단 앞서 나왔던 수수께끼에 대한 대답이 수정된 표현으로 재차 나타남으로써 끝맺는다.

본질적으로 희생적 성격을 띤 모성을 표현 하는데 작가의 모성에 대한 설

명은 전혀 배제된채 대신 네개의 각기 다른 이미지들이 되풀이하여 나오고 있다. 동질인 모성을 작가는 수정된 형태로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모성에 있어 차연 (difference)을 보이며 아울러 하나의 모성 속에 여러층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시키고 있다. 사아전트의 어머니에게서 보는 본능적인 모성, 성 콜롬바누스의 어머니가 보인 성스러울만큼 지고한 모성, 죄책감과 동정심을 유발케하는 스티븐 어머니의 모성. 모성의 본질을 규명하기를 계속하여 미루고 있어 한 주제의 이야기가 시작되면 진전 되고 또한 이에 대한 결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주제가 소개되면 이 주제를 중심으로한 서로 다른 형태의 이야기들이 계속하여 나오으로써 그 주제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수용하고 있다. 수정된 표현으로 재차 말해진 수수께끼의 대답에서도 이와 비슷한 서술의 경향을 볼 수 있다. 처음에 "The fox burying his grandmother under a hollybush" (U 22)의 문장이 수정되어 "A poor soul gone to heaven: and on a heath beneath winking stars a fox, red reek of rapine in his fur, with merciless bright eyes scraped in the earth, listened, scraped up the earth, listened, scraped and scraped" (U 23)로 재차 말해질때에는 수수께끼 문제의 마지막 문장과 대답이 한데 어울려 있다.

사아전트라는 학생의 공부를 지도하며 스티븐은 셰익스피어 극중에 나오는 유령은 햄릿의 조부였다는 사실을 대수학을 이용하여 증명해 보인다. 논리에 있어서는 얼핏 병행될 수 없는 문학과 수학이라는 분야가 한데 어울려 있다.

이상과 같이 첫 장면에서는 서술은 그 흐름에 있어 지속적으로 중단되어 문단과 문단 사이, 문장과 문장의 사이, 심지어 단어와 단어의 사이의 연결이 긴밀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외부로 부터 들려온 말이나 또는 다른 형태의 자극에 대하여 스티븐의 사색적인 반추가 따르는데 이때 외부에서 주어진 말과 스티븐의 대응은 서로 대화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대화의 형식은 그 어떠한 결론을 향하여 이어지기 보다는 서로간에 다른 내용과 다른 차원에서 유발되어 계속 빚나가는 대화가 된다. 성질을 서로 달리하는 목소리들로 구성되고 있는 이 서술 양식에서는 일관성 있게 전개되는 의미를 찾아 내려는 시도를 계속 좌절 시킨다.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속적인 방식으로 전개되는 역사수업은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묻고 답변하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학생이 답변을 하지 못하자 스티븐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암기의 무의미함을 깨달은듯 역사에 대한 블레이크의 관점을 떠올린다.

Fabled by the daughters of memory. And yet it was in some way if not as memory fabled it. A phrase, then, of impatience, thud of Blake's wings of excess. I hear the ruin of all space, shattered glass and toppling masonry, and time one livid final flame. What's left us then? (U 20)

스티븐의 의식속에서 역사는 "기억"에 의해 "꾸며낸 이야기"이며 그것이 기억에 의해 이야기로 꾸미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 가령 블레이크식의 역사에 대한 비전도 그중 하나이다. 이 기억과 이야기는 사실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역사 사실을 어떠한 방식으로 기억하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다. 영국 식민지하에서 개명된 선창 이름인 "Kingstown pier"라는 말은 스티븐에게 아일랜드의 식민지 정세를 일깨운다. 아울러 이 양국간의 종속 관계는 아일랜드에 자료 수집차 와 있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생인 헤인즈와 자신의 관계로 비약 한다.

For Haines's chapbook. No-one here to hear. Tonight deftly amid wild drink and talk, to pierce the polished mail of his mind. What then? A jester at the court of his master, indulged and disesteemed, winning a clement master's praise. Why had they chosen all that part? Not wholly for the smooth caress. For them too history was a tale like any other too often heard, their land a pawnshop. (U 21)

스티븐은 역사적 상황을 극화하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 한다. 역사적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을 것인가. 주인의 역할인가, 아니면 광대의

역할인가. 왜 그 역할을 택하게 되었는가. 이러한 질문은 역사와 관련하여 주체의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한다. 사람들의 정체는 타고난 본연의 것이 아니라 극속에서의 역할처럼 가변적인 것인가. 그렇다면 주종의 관계도 불변의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이 될 것이다. 주체란 사회·정치 상황속에서 형성된 관계가 결정하는 가변적인 것으로 역사적 역할, 기능, 힘으로 그 정체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아는 존재하지 않고 역사적 역할만 있다. 따라서 주체의 정체를 결정하는 것은 자연적인 요인이라기 보다는 사회적인 관계와 사회적 요구이다.

여기서 스티븐이 극적 구도의 형태로 형상화한 역사적 상황은 급기야 스티븐에게 역사란 하나의 이야기 ("tale"), 픽션과 같은 허구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 여겨진다. 역사에 대한 허구성은 역사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전제가 된다. 위의 내용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스티븐의 다음의 명상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역사적 전제와 해석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본다.

Had Pyrrhus not fallen by a beldam's hand in Argos or
Julius Caesar not been knifed to death. They are not to be
thought away. Time has branded them and fettered they are
lodged in the room of the infinite possibilities they have
ousted. But can those have been possible seeing that they
never were? Or was that only possible which came to pass?
Weave, weaver of the wind. (U 210)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인용한 윌 귀절 "Or was that only possible which came to pass?"는 그 다음 이어지는 스티븐의 명상의 시작의 말 "It must be a movement then, an actuality of the possible as possible"과 바로 연결 됨으로써 역사 해석의 가능성은 "weaver of the wind"에 의해 계속 짜여져 잠재적 가능성이 가능성으로 그치지 않고 "movement"가 되어 실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역사가 이처럼 다양한 해석을 유발 해내는 가능성을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다면 역사적 사건 또는 과거 (past)는 수많은 signifieds를 산출해내는 signifier가 될 것이다. 마치 수수께끼같은 성경귀절이 교회라는 베틀에서 그에 대한 의미가 짜여지고 또 짜여지듯이.

To Caesar what is Caesar's, to God what is God's. A long
look from dark eyes, a riddling sentence to be woven and
woven on the church's looms. Ay.

Riddle me, riddle me, randy ro.

My father gave me seeds to sow. (U 22)

위에서 인용한 글의 하단에 나오는 동요 형식으로된 귀절로 유희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이는 어쩌면 교회에 대하여 아니면 교회의 독단적인 교리 해석에 대하여 스티븐의 거부감 내지는 저항을 논리적이며 일관성있는 서술이 아니면서 동시에 이를 와해시키고 있는 그의 독특한 스타일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수수께끼는 signifier로의 역사의 한 특성을 의미한 듯 하다.

여기에서 잠깐 내비친 수수께끼는 위 글에 바로 이어서 내용면에서 좀더 확대되어 나온다.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스티븐이 제시한 수수께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 cock crew,
The sky was blue:
The bells in heaven
Were striking eleven.
'Tis time for this poor soul
To go to heaven. (U 22)

이 문제에 대한 답은 "The fox burying his grandmother under a hollybush"로 문제 만큼이나 애매모호하여 학생들을 혼돈에 빠뜨리는데 이 수수께끼는 「율리시즈」 전체를 통하여 가장 풀리지 않는 애매모호한 대목중의 하나로 생각된다. 우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할 것도 같은 이 수수께

끼에 대한 답을 보면 이 수수께끼의 주인공은 "fox"로 보이는데 이 것의 정체에 대해서는 조이스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아일랜드의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때 당시 아일랜드의 정치가였고 "Mr.Fox"라는 별명으로 통했던 파넬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grandmother"는 『율리시즈』의 첫장에서 나왔던 우유를 배달하는 노파, 곧 상징적 의미에서 아일랜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fox"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예술가를 동경하는 스티븐이 취하고자 했던 처세인 "silence, exile and cunning"을 떠올린다면 스티븐 자신일 수도 있겠다. 이때 "grandmother"는 스티븐이 그의 영전에 무릎 꿇기를 거부했던, 그래서 그가 가책을 느끼고 있는 어머니로 보아야 될 것이다. 또는 "Christfox in leather trews, hiding, a runaway in blighted treeforks, from hue and cry"의 귀절을 떠올린다면 "Shakespeare, Christ, Parnell"을 동시에 상징하는 인물로 볼 수도 있다. 이들은 못 군중으로 부터 이해를 얻지 못하고 쫓기고 희생당한 영웅들이며 어쩌면 작가 자신의 분신적인 진정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 유럽으로 망명했던 스티븐도 이에 포함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스티븐 자신의 복합적 성질을 띤 주체는 "변용"이 주제로 되어 있는 『율리시즈』의 셋째 장 "프로티우스"에서 더욱 심화된 형태를 볼 수 있다. 가령 "프로티우스"에서 "God becomes man becomes fish becomes barnacle goose becomes featherbed mountain" (U 42) 과 같은 대목에서는 바뀌어 가는 대상이 인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신에서 부터 무생물에 이르기 까지 종횡무진으로 변화한다.

역사의 몽마에 사로 잡혀 있으며 역사로 부터 자유로와지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스티븐의 입에서 왜 하필 수수께끼가 튀어나왔을까. 이 의문은 여기에 나온 수수께끼만큼이나 복잡하고 또한 복합적인 대답을 요구한다.

이 수수께끼의 의미의 다층성은 확실하게 명시되지 않은 주제, 구체적 의미나 메시지도 배제된 극히 정제된 언어, 그리고 시의 형식을 취한 제시 형식에서 유래하며 이 다층성은 복합적 의미를 산출해 내는데 있어 결정적이다. 리얼리티에 대한 시각과 이를 언어로 표출하는 문제는 역사의식과 역사쓰기의 문제와 직결된다. 역사의식이란 리얼리티에 대한 관점과 언어의 작

용 없이 순수하게 사건 그 자체만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헤이든 화이트(Hayden White)는 그의 저서 *Metahistory*에서 우리가 과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historiography" (역사쓰기)를 통해서이며 이는 픽션과 동일한 창작적인 과정을 밟도록 되어있다고 지적 했다. 그의 논문 "The Historical Text as Literary Artifact"에서는 역사에 대한 서술은 "... verbal fictions, the contents of which are as much invented as found and the forms of which have more in common with their counterparts in literature than they have with those in the sciences"¹⁴⁾라고 말함으로써 화이트는 역사쓰기를 픽션과 동일 선상에 놓고 있다. 역사가는 같은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이에 대한 자신의 관점에 따라 마치 작가처럼 비극으로도, 그리고 희극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Historical situations are not inherently tragic, comic, or romantic. They may all be inherently ironic, but they need not be emplotted that way. All the historian needs to do to transform a tragic into comic situation is to shift his point of view or change the scope of his perceptions. In any case, we only think of situations as tragic or comic because these concepts are part of our generally cultural and specifically literary heritage. How a given historical situation is to be configured depends on the historian's subtlety in matching a specific plot-structure with the set of historical events that he wishes to endow with a meaning of a particular kind.¹⁵⁾

이 수수께끼에서의 정제된 언어, 메시지의 배제는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

14. Hayden White, "The Historical Text as Literary Artifact", *The Writing of History*, Eds., Robert H. Canary and Henry Kozicki. (Madison :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78), P.49.

15. ibid 49

하는가. 역사와 리얼리티에 대하여 다원적인 관점을 유지하려는 해체주의 입장에서 하나의 낱말이 하나의 의미를 뜻하는, 곧 *signifier* 와 *signified*가 곧장 직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전통적인 언어개념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고 있다. 또한 역사서술이 어떤 특수한 이데오로그에서 해방되어 절대 중립적인 입장에서 씌여졌다는 사실도 용납하기를 거부 한다. 역사적 사실이란 종래의 역사쓰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 자체가 구성상 시작과 결말이 잘 짜여져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역사서술이란 가공적인 요인이 완전히 배제된 단순히 사실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설령 완벽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역사적 사실만을 나열한다면 그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비록 역사적 사건은 언어의 영역 밖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역사서술은 결코 언어의 범주를 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고 언어의 속성 또한 하나의 절대적이고 통합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어떠한 역사 서술이 역사를 제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먼저 언어에 있어서는 단면적인 이데오로그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무한한 해석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언어 구사라야 될 것 같다. 리얼리티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역사적 사건도 한 의미만을 그에 부여하는 언어 사용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에 있어 그만큼의 제한을 두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역사 제시의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스티븐의 수수께끼는 이해 될 수도 있겠다. 언어 사용과 의미의 부여에 있어서 고도의 추상성은 고도의 복잡성을 산출해 낸다. 수수께끼에서 사용된 추상적 언어는 독자로 하여금 창조성을 발휘하게 하며 시라는 형식 또한 리얼리티에 대하여 복합적인 관점을 유지하게 한다. 이 수수께끼에서 역사에 대해서 독단적인 해석을 내리거나 편협된 의미를 부여하기를 거부하는 태도를 읽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전통적 서술방법을 탈피한 "denarrativized"된 제시의 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수수께끼를 통하여 볼 수 있는 역사에 대한 열린 관점은 "네스터" 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디어시 교장과 스티븐의 역사에 대한 열띤 논쟁에서 좀더 본격적으로 다루어 지고 있다. 디어시 교장과 스티븐의 대화는 앞서 전반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로 타협하거나 어떤 합의된 결말을 향해 가기

보다는 다른 내용의 말이 전혀 일치됨이 없이 교차되고 있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역사에 대해 디어시 교장은 보수적이며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이러한 식의 역사에 대한 이해에 스티븐은 의문을 제기하며 그와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내세우는 것을 볼 수 있다.

디어시 교장의 전통적인 입장을 스티븐은 교장실에 들어 서면서 그곳에서 받은 인상에서부터 느낀다.

Stale smoky air hung in the study with the smell of drab abraded leather of its chairs. . . . On the sideboard the tray of Stuart coins, base treasure of a bog: and ever shall be. And snug in their spooncase of purple plush, faded, the twelve apostles having preached to all the gentiles: world without end. (U 24)

우선 "stale smoky air"와 "the smell of drab abraded leather"등의 어휘에서는 탁류와 같이 신선하지 않은 케케묵은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리고 교장실을 장식하고 있는 접시에 담겨져 있는 "Stuart coins"와 스푼에 새겨져 있는 "the twelve apostles"와 같은 물건들은 디어시 교장의 인식은 정치적으로는 영국의, 종교적으로는 교회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as it was in the beginning, is now"나 "snug" 또는 "world without end"와 같은 말은 질서가 잡히고 변화하기를 거부하며 현재의 상태에 편안하게 안주하려하는 그의 안이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듯 하다.

교장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지니고 있으며 교장의 태도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스티븐은 교장의 말이나 주장에 대하여 정면으로 부딪히기 보다는 아이러니컬한 태도로 그의 논리를 와해시키는 수법을 쓰고 있다. 가령 디어시 교장이 스티븐에게 "Do you know what is the pride of the English? Do you know what is the proudest word you will ever hear from an Englishman's mouth?"라고 하자 스티븐은 내심 "The seas' ruler"라는 부정적인 말로 교장이 숭배하는 영국인에 대해 이미지를 전복시킨다. 이어서 스티븐은 『율리시즈』의 첫 장에서 헤인즈가 자신에게 한 말 "it seems history

is to blame"을 떠올리며 그러나 "on me and on my words, unhating"이라고 말함으로써 비난 받아야 하는 대상은 자신과 자신의 언어라고 지적한다. 스티븐은 교장의 주장을 코믹하게 만들므로써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하기도 하는데 가령 교장이 영국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말은 "I paid my way. I never borrowed a shilling in my life. I owe nothing"이라고 하자 스티븐은 자신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빌린 온갖 종류의 품목으로된 긴 목록을 나열한다.

스티븐의 이러한 전복적인 응수에 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You think me an old fogey and an old tory, . . . I saw three generations since O'Connell's time. I remember the famine in '46. Do you know that the orange lodges agitated for repeal of the union twenty years before O'Connell did or before the prelates of your communion denounced him as a demagogue? You fenians forget some things. (U 26)

오코넬 이후 3 세대에 걸친 오랜 기간 동안 역사를 지켜 보았고 1846 년의 기근까지도 기억한다는 교장은 스스로 아일랜드 역사의 증인이며 권위자임을 자처한다. 그러한 그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사적 사실 자체에 대해서 틀린 지식을 가지고 있다. 사실은 오렌지 당원이 아일랜드와 영국의 합병을 지지하였는데 교장은 그들이 이를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잘못된 역사 지식을 근거로 하여 아일랜드 자치에 반대했었던 친영파인 오렌지 당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두둔하며 이들의 정치 활동을 치켜 세운다. 그리고 정작 아일랜드 독립을 위한 단체인 페니언 당원에 대해서는 사뭇 무시를 하고 있다. 더어서 교장의 역사 서술은 이미 잡혀진 전제하에 역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 그 전제란 바로 친영적인 이데올로기이다.

역사에 대하여 이처럼 오류에 찬 논리를 펴는 더어서 교장에 대하여 스티븐은 다음과 같은 역사 읽기로 내심 응수 한다.

Glorious, pious and immortal memory. The lodge of Diamond

in Armagh the splendid behung with corpses of papishes.
Hoarse, masked and armed, the planters' covenant. The
black north and true blue bible. Croppies lie down. (U 26)

위의 내용에서는 아일랜드를 정복했던 영국 왕 윌리엄 3세를 기억하기 위한 친영과 오렌지 당원의 축배의 말로 시작하며 이들의 아일랜드 카토릭 교도들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과 잔인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아일랜드의 독립 투사들의 항거와 희생을 떠올린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아일랜드 역사에 대하여 교장과 스티븐은 이해가 서로 상반된다. 이 두 사람이 달리하는 것은 역사의 이해만이 아니다. 그들의 역사관을 나타낼 역사 서술에 있어서도 대조를 보이고 있다. 디어시 교장의 서술은 다 완성된 문장들로 이루어져있고 문장과 문장 사이도 빈틈이 없이 연결되어 있어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전달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확실하다.

반면에 스티븐의 역사 서술은 언뜻 보기에 단어만 나열 되어 있는 것 같다. 윗 글의 첫 문장은 오렌지 당원들의 영국에 대해 충성을 기리는 어귀이지만 이 어귀의 원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디어시 교장의 역사 이해에 대한 스티븐의 아이러니컬한 비판적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서술체 역시 언어가 시어로 되어 있으며 문장 자체도 미완성일 뿐더러 문장과 문장을 잇는 연결고리라 할 수 있는 접속사가 빠져 있다. 이처럼 틈새 (gap)가 있는 서술체는 화자가 자신의 논지를 정연하게 논리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내용 완성을 하는데 읽는사람의 참여를 요하게 된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 나오는 장면에서는 두 사람의 서술체가 더욱 더 달라지고 있다.

디어시 교장은 "I am descended from sir John Blackwood who voted for the union . We are all Irish, all kings' sons. . . . *Per vias rectas*, . . . , was his motto. He voted for it and put on his topboots to ride to Dublin from the Ards of Down to do so" (U26)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디어시 교장은 John Blackwood경에 대하여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고 그의 서술 또한 John Blackwood경의 좌우명인

"Per vias rectas" ("꼭 바른길로") 만큼이나 단호하며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다. 디어시 교장이 Blackwood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해도 사실은 자기 도취에 빠져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장에 대하여 스티븐은 사뭇 아이러니컬하며 장난기어린 어조로 Blackwood경에 가벼운 인사말을 건네는 식으로 내심 응수하고 있다.

Lal the ral the ra
The rocky road to Dublin.

A gruff on horseback with shiny topboots. Soft day, sir
John! Soft day, your honour! Day! Two topboots
jog dangle on to Dublin. Lal the ral the ra. Lal the ral the
raddy. (U 26)

스티븐이 교장의 의견과 상치하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때 그는 교장과 같은 서술 방법을 쓰지 않는다. 디어시 교장의 Blackwood경에 대한 장황하고도 심각한 어조는 스티븐의 표현에서는 장난기 어린 이미지만 있을 뿐이다. 여기서 보는 스티븐의 역사 쓰기는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 서술로 직접 표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극히 정제된 언어는 역사 사건을 앞서 헤이든 화이트가 언급했던 비극적이거나 희극적 상황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어떠한 한 방향의 역사적 이해에 대하여는 이를 와해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스티븐의 이러한 서술은 디어시 교장의 의견에 반격을 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와는 전혀 판판인 역사 이해를 완전히 다른 서술체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두 사람은 "langue"를 통하여 역사에 대한 해석에 대한 힘 겨루기를 벌리는 것이 아니라 "parole"를 통하여 담론을 벌리고 있다.

이러한 스티븐의 역사 쓰기는 앞서 디어시 교장의 "we must also be just"라는 말이 암시하는 어떤 도덕성, 혹은 전제로하고 있는 하나의 원칙을 내세우지 않는다. 교장의 일방적 삶의 원칙을 스티븐은 받아 들일 수 가 없기에 그는 "I fear those big words, . . . which make us so unhappy." (U 26)라고 응수 한다. 삶에 대한 도덕성과 가치 기준은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곧 누구의 삶을 역사가 다루어야 되는지,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회적 권력

을 쥐고 있는 자와 사회의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는자의 문제와도 연결 된다. 위의 내용에 바로 이어지는 대목으로 디어시 교장이 신문사에 기고하려는 의도로 편지를 쓰는 동안 스티븐은 앉아서 교장실의 벽에 걸려 있는 말의 그림을 올려다 본다.

Stephen seated himself noiselessly before the princely presence. Framed around the walls images of vanished horses stood in homage, their meek heads poised in air. lord Hastings' Repulse, the duke of Westminster's Shotover, the duke of Beaufort's Ceylon, prix de Paris, 1866. Elfin riders sat them, watchful of a sign. He saw their speeds, backing king's colours, and shouted with the shouts of vanished crowds. (U 27)

이 대목은 영국 왕과 귀족들의 유명한 말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 말에 대한 윗 내용은 역사가 다루어야 할 대상, 곧 역사의 중심이 되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생각하게 한다. 위의 글에서 "princely presence", "homage", "meek heads", "watchful of a sign", "king's colours"와 같은 언어들 은 통치자의 위엄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충성, 그리고 이 현재 위치와 통치자-피통치자들간의 관계를 견지케 하려 하는 질서와 순종을 나타낸다.

이 말의 그림은 스티븐의 의식속에 위에서 제시된 디어시 교장실의 말의 그림과는 상반되는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다.

Where Cranly led me to get rich quick, hunting his winners among the mudsplashed brakes, amid the bawls of bookies on their pitches and reek of the canteen, over the motley slush. *Fair Rebel! Fair Rebel!* Even money the favourite: ten to one the field. Dicers and thimblerriggers we hurried by after the hoofs, the vying caps and jackets and past the meatfaced woman, a butcher's dame, nuzzling thirstily her clove of orange. (U 27)

스티븐이 생각하고 있는 말은 왕과 귀족을 위해 잘 조련된 말이 아니라 삶의 생존경쟁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경마장의 말이다. 교장실 벽에 걸려 있던 그림이 떠올린 사람들에게 대해 말한다면 지배층의 귀족은 하나씩 개별적으로 그려진 것과는 달리 일반 사람들은 그저 한 무리의 군중 ("vanished crowds")으로 집단적으로 그려져 있어 이들에 대한 개인적인 중요성은 고려되고 있지 않는데 비하여 스티븐의 의식에서 그려진 또하나의 장면에서는 등장인물들은 온갖 층의 서민들인 "dicers", "thimblerriggers", "butcher's dame"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은 하나씩 개별적으로 취급되고 따라서 그 개인적인 존재의미를 인정받고 있다. 즉, 삶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 이들의 몫을 인정 받은 셈이다.

또한 이들의 삶의 장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 피부에 생생하게 느껴지는 세계로 윗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이 어느 틀 안에서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정돈된 세계가 아니다. 오히려 삶이 더욱 현실적으로 실감 나게 그려져 있다. 이어서 밖에서 운동 경기 소리가 들려오자 스티븐의 의식속의 생존경쟁의 테마는 좀더 심화된다.

Again: a goal. I am among them, among their battling bodies in a medley, the joust of life. . . . Jousts. Time shocked rebounds, shock by shock. Jousts, slush and uproar of battles, the frozen deathspew of the slain, a shout of spearspikes baited with men's bloodied guts. (U27)

윗 글에서 또 한번 같은 주제를 두 가지의 상이한 배경에 놓고 이야기함으로써 다원적인 의미 부여를 하고 있으며, 또한 한 주제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듯이 하기 보다는 그 사이에 다른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두 문단으로 끊어서 이야기하는 스티븐 특유의 서술형을 볼 수 있다.

누구의 역사인가, 누가 썼는가 의 문제는 사회의 지배층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회 저변으로 밀려난 피지배층의 역사인지의 문제와 관련되며 역사 쓰기에 있어 그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역사의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는 세계 역사인 경우에는 자연 인종이 문제가 아니 될 수 없다. 친영파이며 사회의 지배층을 대표하는 디어시 교장에게 유태인은 이방인으로 "우리들"의 범주에서 제외된 타인 (the others)이 된다. 디어시 교장이 말하는 유태인의 영국역사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부정적인 시각을 띄고 있다.

England is in the hands of the jews. In all the highest places: her finance, her press. And they are the signs of a nation's decay. Wherever they gather they eat up the nation's vital strength. I have seen it coming these years. As sure as we are standing here the jew merchants are already at their work of destruction. Old England is dying. (U 28)

영국에 대해서 오랜 역사를 지닌 위대한 국가이며 이러한 나라가 붕괴되는 원인은 이방인인 유태인들의 책임이라는 디어시 교장의 말에 대하여 스티븐은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고 다만 디어시 교장의 역사 서술과 이해와는 완전히 다른 말로 내심 응수한다. 스티븐이 떠올린 시 귀절은 붕괴 되어가는 영국 쇠망에 대한 비전을 그린 블레이크의 시이다.

*The Harlot's cry from street to street
Shall weave old England's windingsheet.* (U 28)

이 시에서는 유태인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다.

유태인에 대해 편견을 가진 디어시 교장은 집요하게 심각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계속하여 말한다.

They sinned against the light, . . . And you can see the darkness in their eyes. And that is why they are wanderers on the earth to this day. (U 28)

이 말에 스티븐은 빠리에 있을때 그곳에서 목격했던 유테인들의 모습을 떠올린다.

On the steps of the Paris stock exchange the goldskinned men quoting prices on their gemmed fingers. Gabble of geese. They swarmed loud, uncouth, about the temple, their heads thickplotting under maladroït silk hats. Not theirs: these clothes, this speech, these gestures. Their full slow eyes belied the words, the gestures eager and unoffending, but knew the rancours massed about them and knew their zeal was vain. Vain patience to heap an hoard. Time surely would scatter all. A hoard heaped by the roadside: plundered and passing on. Their eyes knew their years of wandering and, patient, knew the dishonours of their flesh. (U 28)

위의 글에서 유테인들의 모습은 디어시 교장이 지적한 죄를 범한 민족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삶을 영위하기에 바쁘고 고달픈 보인다. 유테인들의 지껄임은 그들의 말을 알아 듣지 못하는 그곳 빠리 시민들에게는 거위들의 지저귀는 소리 정도로 들린다. 주식거래소에서 시세를 매기고 있는 그들이 낀 보석 반지가 말하듯 그들은 노력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애써 모은 이 재산은 언제 그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될지도 모를 헛된 인내심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옷, 말, 제스처도 그들의 재산 만큼이나 공허한 것처럼 보이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그들이 아무리 노력한다해도 이들에 대해서 내려진 근본적인 편견과 경멸로 인해 이 노력은 모두 헛수고라는 것을 유테인들 자신은 알고 있다.

위에서도 역시 스티븐은 그의 고유의 방식대로 이야기를 엮어가는 역사 서술체가 아닌 역사적 비전을 통하여, 곧 Emer Nolan이 그의 저서 *James Joyce and Nationalism*에서 언급한바 있는 "denarrativized" 이미지¹⁶⁾를 통하

16. Emer Nolan, *James Joyce and National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5), P.73.

여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스티븐은 유대인들이 하는 일에서 탐욕보다는 삶을 유지해 가려는 노력으로 보고 있으며 긴 방랑의 역사를 가진 유대인들만이 아는 고통을 생각한다. 디어시 교장이 그들의 눈에서 본 것은 "the light"에 대하여 죄를 범한 사람들의 "darkness"라면 스티븐에게 이 "darkness"는 "brightness"가 이해하지 못하는 "brightness"안에서 빛나는 "darkness", 곧 "a darkness shining in brightness which brightness could not comprehend" (U 23)로 여겨진다. 스티븐은 디어시 교장의 선과 악에 대한 일괄적인 이분법적 논리와 그에 의한 가치기준에 저항감을 느끼고 있다. 서구사상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형이상학의 사고의 틀에서 이분법적 논리와 이에 따르는 가치기준에서의 오류에 대한 데리다의 지적은 여기서 스티븐의 저항을 설명해줄 수 있겠다.

끝내 디어시 교장의 역사의 이해에 있어 편견에 차 있고 잘못된 전제하에 일방적인 역사해석을 내리자 스티븐은 드디어 "History, . . . is a nightmare from which I am trying to awake" (U 28)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내 그는 밖에서 들려오는 경기 소리에 "A whirring whistle: goal. What if that nightmare gave you a back kick?"라고 말하며 선동적인 호각소리, 그리고 하나의 목표 지점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는 군중들의 아우성 소리를 떠올리며 자신의 생각에 대해 이들이 반격을 가하고 있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과연 디어시 교장은 스티븐의 생각을 알기나 한듯 "The ways of the Creator are not our ways, . . . All human history moves towards one great goal, the manifestation of God"라고 말한다. 이미 존재하는 추상적 이론을 근거로 한 어떤 전제하에 역사를 파악하려 하는 디어시 교장에게 당연히 역사는 어떤 틀에 맞추어 진행되는 것처럼 여겨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현실적인 이론에 밀받침한 역사관은 실생활과는 동떨어져 있으므로 자연 "창조주의 방식은 우리 인간의 방식과는 다를" 수 밖에 없다. 필연성은 물론 예측불허의 우연성을 불가피하게 내재하고 있는 역사를 현실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역사관 결코 디어시 교장의 주장처럼 미리 계획한대로 어떤 목표점을 향하여 전진하는 경기장의 공처럼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디어시 교장의 역사에 대한 논리를 받아 들일 수 없는 스티븐은 그에게

밖에서의 소리가 들려오는 창문쪽을 가리키며 "That is God . . . A shout in the street." (U 28)라고 말한다. 스티븐의 이러한 태도는 앞서 그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왕과 귀족등의 지배층 계급의 인물 대신 일반 군중을 떠올렸던 그의 생각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다. 그러나 극히 보수적이며 사회의 지배 계급의 대변인인 듯한 디어시 교장의 편에서 보면 거리에서 나는 외침소리, 곧 군중은 "the manifestation of God"인, 곧 절대성을 인정 받은 어떤 위대한 목표를 향해 무조건 따라와야만 할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디어시 교장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의, 따라서 역사의 중심부에 들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는 선에 속하는 인물이 아니므로 신의 뜻을 행하는데 있어 방해로 하는 죄의 존재이다. 그리고 이 "죄"에 속하는 존재는 이방인인 유태인만이 아니다. 사회의 중심부에 속하지 않는 여성 또한 유색 인종인 유태인과 마찬가지로 "sin"에 연루된 존재이며 세계의 역사에 있어 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이들에게 전가 한다.

We have committed many errors and many sins. A woman brought sin into the world. For a woman who was no better than she should be, Helen, the runaway wife of Menelaus, ten years the Greeks made war on Troy. A faithless wife first brought the strangers to our shore here, MacMurrough's wife and heer leman, O'Rourke, prince of Breffni. A woman too brought Parnell low. Many errors, many failures but not the one sin. I am a struggler now at the end of my days. But I will fight for the right till the end. (U 29)

이에 대한 스티븐의 내심의 응답은 주민중 신교도가 압도적이며 친영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고 아일랜드의 자치를 반대하는 아일랜드 주들중의 하나인 Ulster의 반자치군의 전투 구호를 떠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For Ulster will fight
And Ulster will be right. (U 29)*

디어시 교장의 신조와 태도는 이 구호의 내용과 어조면에서 일치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디어시 교장의 이러한 논리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

역사쓰기에 있어 사회의 중심적 위치에 속하지 않는 이들은 타자, 곧 "the other"로 항상 주도권을 행사하는 자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이 타자들의 부당함을 역사적 증거를 들며 증명해보이는 디어시 교장의 말을 주의깊게 음미해 보면 정치적인 내용과 종교적인 내용이 색깔이 다른 두 갈래의 색실이 한데 엮여져있는 것처럼 성질을 달리하는 두 개의 이슈들이 서로 얹혀 있다.

신에게 죄를 지었으며 국가의 활력을 쪼먹는 유대인들을 가르켜 "the light"에 대하여 "sin"을 범한 존재라고 교장은 주장하는데 "sin"이란 종교적인 어감을 갖는 단어이다. 그런가하면 여자들은 이 세상에 죄를 처음 가져온 존재로 전쟁의 원인이 되어, 아일랜드에 처음으로 외국 세력을 끌어 들였고, 아일랜드의 정치적 영웅을 붕괴시킨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자들 또한 "sin"을 범한 존재라고 한다.

디어시 교장의 이와 같은 논리에서 볼 수 있는 정치와 종교의 합류를 두 가지 면에서 고찰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카톨릭이 국교로 되어 있는 아일랜드에서는 종교와 정치의 결합은 이 나라의 특이한 전통이 되고 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종교가 암시하는 절대적 moral, 가치기준, 삶의 지표등의 추상적인 믿음은 현실적으로 정치 세력의 영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위의 구호에서 "fight"는 "right"와 직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정의와 힘의 상관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적 승리는 곧 도덕적 승리이다. 도덕적 우위성은 정치적 세력의 힘의 투쟁이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사람들이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도덕에 내재하는 권위, 또는 절대성에 대하여 의문을 하게 한다.

이제 이 학교를 그만 두려고 결심하고 교문을 나서는 스티븐에게 달려와 디어시 교장은 다시한번 그의 잘못된 역사 지식을 근거로, "Ireland, . . . , has the honour of being the only country which never persecuted the jews. . . . Because she never let them in" (U 30)이라고 말 한다. 사실은 아일랜드는 11 세기경에 이미 유대인들이 정주하고 있었던 것을 교장이 몰랐던 것이다.

디어시 교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스티븐은 다음과 같은 무언의 이미지를 통해 "darkness"의 존재인 유태인과 반대로 빛의 존재요, 또한 유태인들과 달리 배금주의 사상을 지녔고, 또한 호머의 『오딧세이아』에서 현명한 스승인 네스토르의 현대판 이기도한 교장에게 아이러니컬한 말을 마지막으로 선사하며 교장을 떠난다.

On his wise shoulders through the checkerwork of leaves the
sun flung spangles, dancing coins. (U 30)

"네스터"장에서 보는 역사쓰기는 분명 전통적인 역사 서술은 아니다. 기본적인 구조면에서는 담론의 형식으로 스티븐과 학생들, 스티븐과 디어시 교장이 서로간에 맞수로 대응하고 있다. 이 담론의 초점은 어떤 독특한 의미를 결론적으로 끌어 내는데 있기 보다는 두 담화자들간의 서로 다른 역사쓰기, 즉 역사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들이 충돌하며 힘 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 둘은 서로에게 위협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이때 초점은 어느 편이 더 타당한가를 가리기 보다는 서로 모순되는 문제, 모순되는 이데올로기의 충돌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네스터"장의 역사의 담론은 상대 담화자를 설득시키거나 상대방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면서 평행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적인 도덕적 의미를 찾거나 문제의 해결을 발견하는데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보다는 역사이해에 있어 서로 다른 입장들의 대립에서 오는 긴장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 긴장감은 서로 다른 힘들간의 다이내믹한 경합에서 연유한다. 여기서 얻어는 곧 힘으로 어떤 힘에 대한 다른 힘의 도전이거나 또는 지배적인 힘에 대하여 저항하는 힘이기도 하다.

역사관 결국 온갖 종류의 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질적인 힘들이 경합을 벌이는 장이다. 이 힘이란 정치적 세력을 통해 구현 되든 리얼리티를 보는 시각을 통해 구현 되든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 변모해가며 그 존재를 드러낸다. 힘 겨루기를 통한 끊임없는 갈등이 배제된 사회란 하나의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속에서 변화도 진전도 없는 동결된 사회일 뿐이다. 성격을 달리하는 힘들의 부딪힘 그 자체가 역사를 밀고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 물론

역사를 움직여간다는 것이 꼭 역사를 발전시킨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세력들, 서로 다른 성질의 힘들의 대결은 「올리시즈」 외의 다른 작품에서도 얼마든지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곳곳에 아일랜드의 역사가 내재되어 있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첫 장의 크리스마스 장면에서의 파넬의 정치적 실각을 두고 단테 아주머니와 오케이시씨의 팽팽하게 논쟁을 벌리는 장면에서도 두 세력의 힘겨루기를 읽을 수 있다. 인류 역사와 아울러 아일랜드의 역사로 부터 시작하는 「피네간의 경야」에서는 첫 페이지에서 부터 서로 다른 성질의 힘들이 때로는 문과 무로, 때로는 전쟁과 사랑으로 수시로 면모를 달리 해가며 부딪힌다. 이 작품에서는 두 힘만의 대결 뿐아니라 여러 힘들이 충돌, "collideorscape" (FW 143.28)이 그려지고 있다. 이 힘들은 부딪히고 충돌해가며 역사의 만화경을 창출해 낸다. 이 힘들간의 충돌과 견제는 곧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데 있어서, 그리고 역사의 해석과 의미부여에 있어서도 무한한 생성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다.

과거에 대한 무한한 의미의 생성을 위한 서술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데 있어서는 중심 과제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하나의 중심적 생각을 일관되게 서술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쓰는 것보다는 다른 서술 방법들을 병렬해보이는 방법으로, 일관성의 해체를 특징으로 하는 있는 담론 형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담론의 형식에서는 자연 주체, 곧 역사쓰기에서 중심적 목소리나 역사에 대한 지배적인 시각이 해체 된다. 역사 서술에서 중심이 되는 한 사람의 목소리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병렬시킴으로써 주체를 해체하는 것외에 또 하나 주체에 대한 해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 각자의 자아 (self)가 해체됨으로써 주체가 해체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자아에 대한 해체주의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나 ("I")에 대한 일관성있는 자아의 분열, 또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구성된 자아를 의미 한다. 이때 "나"라는 존재는 상호 모순되는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이 경합을 벌리는 장으로 나의 정체는 수시로 바뀐다. 역사라는 무대에서 이러한 분열된, 또는 복합적인 "나"는 언제나 갈등의 장이며 상황에 따라 그 역할을 달리해 가는 가변적인 주체로 그 역할·기능만 있을뿐 통

합적이거나 지속적인 불변의 자아란 없다.

이처럼 일관된 서술 형식대신 담론 형식을 사용하고 주체가 해체되고 있는 방식의 역사 제시는 역사를 텍스트화 시킴으로써 다원적인 의미를 생성해 낼 수 있게 한다. 다원적인 의미 생성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우수성과 열등성, 선과 악, 진실과 거짓등으로 명백하게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배제해야 한다. 이 이분법적 논리와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게 될 때 억압되었거나 가장자리로 밀려났던 역사를 회복하여 역사를 형성하고 있는 요인들이 복합적이고 다층적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역사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힘들의 작용을 감안 한다면 역사의 흐름은 어떤 뚜렷한 목표를 향하여 계획한 것처럼 언제나 타당한 방향으로 움직여가기 보다는 예측불허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면서 필연성과 아울러 우연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면 역사란 그 진행에 있어서 일직선적인 형태가 아니라 무수하게 옆가지를 쳐가며 기능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여 가고 있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얼핏 보기에 모순에 차 있는 텍스트가 된다. 역사의 전개에 있어서도 질서있게 역사가 움직이고 있기 보다는 이질적인 힘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돌출해 나오고 이들이 서로 충돌하며 언제나 변수가 작용하여 혼란스러운 역사의 과정이 될 것이다.

이 혼돈이 지배하는 역사라는 텍스트는 그러나 생성적 텍스트로서 어떤 한 개념만으로는 그 자체를 다 설명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 개념이나 이론은 역사를 설명하기 보다는 역사 그 자체와는 관계 없이 필요에 의해, 그 필요성이 낳은 이론에 불과할 수 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역사는 그 자체가 완벽하게 이해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실로 서술화 될 수조차 없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헤이든 화이트의 지적대로 언어를 통하여 서술화하지 않고 어떻게 역사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역사의 제시에서 결코 서술화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단지 다양한 의미를 산출해 낼 수 있도록 역사를 텍스트화해야 된다면 종전의 story-telling식인, 곧 구조에 있어 시작과 결말이 잘 짜여 있고 중심이 되는 주체가 있어 지배적인 목소리로 서술하는 방식은 역사의

다층적인 의미를 표출해 내기에 충분하지 않다. 조이스는 그의 작품에서의 기존의 역사쓰기와는 달리 역사를 텍스트화 시킴으로써 역사를 열린 텍스트로 만들고 있다. 이 역사라는 열린 텍스트는 궁극적으로 아직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신적 지평을 넓혀줄 것이다.

과거의 역사 사건이든 리얼리티에 대한 것이든 “해석”의 문제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또한 미래에 대한 방향 결정을 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 해석의 문제는 결코 단순한 사유의 유희가 아니다.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인가의 문제는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더블린 사람들』에서 언어와 침묵에 질게 배어 있는 과거라는 유령은 더블린 사람들의 의식을 짓누르며 그들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있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스티븐은 더블린을 떠나 파리로 향해 떠나면서 “Welcome, O life! I go to encounter for the millionth time the reality of experience and to forge in the smithy of my soul the uncreated conscience of my race” (P 252-3)라고 말한다. 이는 작중 인물 스티븐만의 포부만이 아니라 작가 조이스 자신이 스스로에 부과한 평생의 과제이었으리라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리얼리티에 대해서도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도 “백만번” 재창조를 해야되는 과제가 우리에게도 역시 남아 있다.

〈숭실대학교〉

인용 문헌

1. 제임스 조이스의 작품

Joyce, Jame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Ed. Chester G. Anderson. Penguin Books, 1977.

-----, *Finnegans Wake*. 3rd ed. London: Faber & Faber, 1984.

-----, *Ulysses*. Ed. Hans Walter Gabler et al. New York: Vintage Books, Random House, 1986.

2. 조이스 관련의 비평

Cheng, Vincent J. *Joyce, Race, and Empire*. Cambridge: Cambridge UP, 1995.

Fairhall, James. *James Joyce and the Question of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P, 1995.

Glasheen, Adaline. *Third Census of Finnegans Wake*.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77.

Hofheinz, Thomas C. *Joyce and the Invention of Irish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P, 1995.

Nolan, Emer. *James Joyce and National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5.

김종건. <율리시즈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사. 1995년

3. 비평 이론

Attridge, Derek, Geoff Bennington, and Robert Young, eds. *Post-structuralism and the Question of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P, 1987.

Derrida, Jacques. *Of Grammatology*. Trans. Gayatri Spivak.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76.

- *Writing and Difference*. Trans. Alan Bas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8.
- *Speech and Phenomena, and Other Essays on Husserl's Theory of Signs*. Trans. Newton Garver.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3.
- Foucault, Michel. *Language, Counter-Memory, Practice*. Ed. & Trans. Donald F. Bouchard. Ithaca, New York: Cornell UP, 1986.
- , *Madness and Civilization: A History of Insanity in the Age of Reason*. Trans. Richard Howard. New York: Vintage Books.
- Lee, Alison. *Realism and Pow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0.
- Reilly, Jim. *Shadowtim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3.
- White, Hayden. "The Historical Text as Literary Artifact", *The Writing of History*, Eds. Robert H. Canary and Henry Kozicki.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78.
- Young, Robert. *White Mytholog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0.